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45절
- 찬송: ①찬송가 256장(새찬송가 515장)
②찬송가 338장(새찬송가 280장)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나병환자”

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자에게 엄중하게 경계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계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모여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온 나병환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를 미리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제사장이 미리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나병이 나왔다는 확인 절차를 행하여 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는 나병환자가 나왔을 경우에 행하는 정결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의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차 정결의식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져 오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정결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때 새의 피가 질그릇 안의 정결한 물과 섞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 있는 다른 한 마리의 새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에 적신 뒤 이 피를 나병이 나온 사람에게 일곱 번 뿌려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말해 주는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강하며 광택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오래 보존됩니다. 다시는 육체에 나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과 활력이 충만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건강한 피 색깔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흡수력이 좋은 향기로운 박하초 식물로 죄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살아 있는 새를 죽은 새의 피에 담그는 것은 두 새를 동일시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한 마리 새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마리 새를 취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마리의 새는 나병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치유되어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예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에 적셔진 새가 놓임을 받고 들판으로 날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상징합니다.

나병환자가 제사장에게 의해서 일단 정결하다고 선언 받았을지라도, 진영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옷을 빨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그리고 온 몸의 털을 밀며 그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완치된 나병환자는 제1차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진영 내로 들어올 수 있었으나 곧장 자기 장막,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7일 동안을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기거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 완쾌된 후 가정에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나누기 전에 우선 나병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질병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려는 제사 의식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이 되면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의한 질서는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제1차 정결의식에 이어 8일 후에 제2차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어린 숫양을 취해 기름 0.3리터와 함께 속건제로 드리고 숫양 하나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십 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로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회막문 앞 여호와와 번제단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8일은 7일 간의 창조와 안식의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돌아온 첫 날입니다. 회복과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던 나병환자가 다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 엄지손가락에 바른 뒤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함 받을 자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결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지만 제사 의식만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나병은 파괴성, 전염성, 혐오스러움 등으로 경계하며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정하게 여기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만들며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주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지 아니하고 그 일대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동네에 계시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복과 은혜를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끝으로 나병환자의 어떠한 처신과 언행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가를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예수님이 전능하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 그는 불치의 병을 치료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아래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의하여 치료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곤란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그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졌고 이를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과감한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고 행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자신의 소원을 응답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귀중한 모범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나병환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였는데 나병환자가 나타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는 간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환자가 즉시 치료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중하게 경계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나병환자는 매우 과단성이 있고 용감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레 13:45,46). 유대사회에서 나병환자는 철저히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되었습니다. 나병환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과단성 있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의 태도와 간구한 말은 자신이 지금 전능하신 분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을 고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당장 낫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나병

은혜와진리소식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Grace and Truth Church